

KIA 마무리로 떠오른 신인 한승혁

“스피드 버리니 야구가 보여요”



“경험 쌓아 더 큰 선수 되고파”

KIA 타이거즈 한승혁의 진짜 야구가 시작됐다. 한승혁은 2010년 신인 드래프트 화제의 인물이었다. 덕수고 재학시절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최대어로 꼽혔지만 베이저리 그 진출 얘기가 나오면서 지명 외 선수로 분류됐다. 1차 지명권을 날릴까 우려한 구단들이 한승혁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미국발 정보를 활용한 KIA 스카우트팀은 8번째로 돌아온 지명순서에서 한승혁을 선택했다. 허를 찌르는 지명으로 화제가 됐지만 한승혁은 입단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팔꿈치가 좋지 못했던 한승혁은 일찌감치 수술을 선택하면서 입단에 앞서 재활군이 됐다. 올 시즌 첫 스프링 캠프에 나선 한승혁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부터 151km를 찍으며 재할이 끝났음을 알렸다. 5월3일에는 SK와의 경기에서 1군 데뷔도 했다. 하지만 제구 난조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갔다. 8월 다시 1군 호출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제구가 문제가 됐다. 한승혁은 “2군에 다시 내려가면서 많이 힘들었다. 제구가 너무 안 잡혀서 마음 고생을 했다”고 밝혔다. 9월5일 한승혁은 다시 1군 호출을 받았다. 150km를 훌쩍 넘겼던 스피드는 140km 후반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불같은 강속구는 아니지만 안정된 공을 뿌리며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스피드를 버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연 셈이다. “스피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한승혁은 “준비도 안됐는데 마음만 급하고 욕심이 과했다. 구속을 유지하면서 제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공을 던지면서 게임이 아니라 스피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스피드에 제동이 걸렸던 한승혁은 공이 아니라 야구를 보면서 생각의 전환을 이뤘다. 한승혁은 “스프링 캠프에서도 그렇고 적

응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한다. 선배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망명 최항남이 던진 한마디도 한승혁의 마음에 뒤늦게 외닿았다. 한승혁은 “지난번 2군에 내려갈 때 최항남 선배님이 ‘긴박한 상황이 되면 몸이 솔릴 것이다. 뒤에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 패전투수가 됐던 15일 SK와의 경기 무사 1·2루에서 공을 던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야구를 배워가고 있다. 재미있다”고 말했다. 선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았다. 한승혁을 마무리 후보로 찍은 선 감독은 올 시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게 아쉽다는 얘기도 했다. 한승혁은 “마무리 자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기대가 더 된다. 못하면 욱도 먹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성장을 하는 것 같다. 이대로 올 시즌 마무리 잘해서 내년 시즌 더 큰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승혁

병원 후송된 두산 윤석민
규정상 타석에 서야 하는데...
선동열 감독 양보로 문제 해결

6시38분에 경기 시작 왜? 프로야구 주중 경기는 오후 6시30분에 시작되지만 18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와 두산과의 경기 시작 시간은 6시38분이었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가 문제가 됐다. 경기 시작 10여분을 앞두고 몸을 풀던 두산 윤석민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윤석민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갑작스런 부상의 경우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고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간단하지 않았다. 윤석민이 지명타자로서 상황을 복잡해졌다. 윤석민은 이날 4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회 요강에는 오더가 교환된 경우 상대 선발투수가 교체 되지 않은 한 지명타자는 한번은 타격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악의적인 선수 운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미 윤석민은 이미 병원에 실려간 상황. 이를 놓고 양팀 감독과 심판진이 머리를 맞댔다. KIA 선동열 감독이 “명문화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부상이 명백한 만큼 굳이 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밝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현장 감독이 양해를 구한만큼 예외를 인정, 윤석민의 자리에 최준석이 들어서게 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워즈니아키 가볍게 2회전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KDB 코리아오픈 2012 본선 1회전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와 루스 아란차(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워즈니아키가 공을 받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배구 신인 드래프트
10월 22~23일 개최

2012-2013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에 데뷔하는 새내기들이 드래프트 시장에 나온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다음달 22~23일 각각 오후 2시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남녀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남자 선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3학년 재학생이라면 드래프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자 선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 중 연맹에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인 지명 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연맹은 드래프트 신청서를 19일부터 받고 여자 선수는 24일 오후 6시, 남자 선수는 26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인 지명 방식은 남자부와 여자부가 다르다. 22일 개최되는 남자부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최종순위의 역순으로 신인을 지명한다. 이에 따라 지난 시즌 6위인 LG손해보험이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하고, 드림식스, KEPCO,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삼성화재 순으로 지명이 이뤄진다. 23일 열리는 여자부 드래프트는 1라운드에서 확률추첨제를 시행한다. 지난 시즌 하위 세 팀인 GS칼텍스(6위), 흥국생명(5위), IBK기업은행(4위)이 확률추첨으로 먼저 순서를 정하고, 상위 세 팀 중에서는 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순으로 선수를 지명한다. /연합뉴스

최강희호 11월 호주와 평가전

아시아컵 대비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1월14일 국내에서 호주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호주와 11월14일 국제축구연맹(FIFA)의 A매치 데이 때 평가전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2015년 아시아컵 직전에 호주로 가서 리턴 매치를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평가전은 내달 1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이후 이듬해 3월 26일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5차전까지 경기가 없는 대표팀의 일정을

고려해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화성종합운동장이 유력하다. FIFA 랭킹 25위인 호주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 B조에서 일본(승점 10), 요르단(승점 4)에 이어 2무1패(승점 2)로 3위를 달리고 있다.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호주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유럽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 뛰는 킬리언 마크 슈워처를 필두로 에버턴에서 한술밥을 먹은

미드필더 팀 케이힐(뉴욕 레드불스)과 중앙수비수인 투카스 닐(와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호주의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6승9무7패로 다소 밀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카타르에서 열린 2011 아시아컵 조별리그에서 호주와 마지막으로 만나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실점해 1-1로 비겼다. 하지만 한국은 1998년 2월 시드니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1로 패한 이후 치른 4차례 경기에서 3승1무를 달리고 있어 한 수 위의 전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돈버는 데는 올림픽 보다 월드컵

경제적 효과 더 커... 스폰서 계약 액수도 큰 차이

스포츠 이벤트에 후원 계약을 맺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림픽보다 월드컵과 같은 축구 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윌스트리트저널은 18일(한국시간) “수백만 명의 선수에게는 올림픽이 최고의 이벤트를지만, 후원 기업들에게는 런던올림픽의 성공도 축구에 비교하면 빛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런던올림픽 스포츠용품 공

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의 예를 들어 축구 대회가 광고 효과와 수익 창출면에서 올림픽보다 앞선다고 전했다. 아디다스는 1억 파운드(약 18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런던올림픽 자원 봉사자와 관계자의 복장, 선수 용품 등을 공급했는데, 이는 영국 내 상반기 매출이 24% 오르는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드컵축구대회와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등에 대한 후원은 해당

용품에 대한 구매로도 이어져 폭발력이 더 크다. 유로 2012 공인구인 이 회사의 ‘명고 12’는 대회 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동안 700만 개가 팔렸고, 독일 대표팀 유니폼 상의는 100만 장이 판매됐다. 이 덕분에 아디다스는 올해 축구 부문에서만 16억 유로(약 2조3,000억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차이는 스폰서 계약 액수에서도 나타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9~2012년에 파트너 기업당 8500만~90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심판용품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아디다스와 맺은 계약만 3억5100만 달러짜리였다. /연합뉴스